

2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이상, 김일엽

장영은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김일엽의 학창 시절

- 성장 과정
- 이화학당 시절
- 도쿄 유학

02. 김일엽과 잡지 《신여자》

- 여성들의 우정과 문학의 공동체
- 《신여자》의 창간과 폐간

03. 김일엽의 여성해방론

- ‘여자교육의 필요’
- 의복개량논쟁
- 자유연애와 신정조론

04. 김일엽의 불교 귀의와 문학

- 출가에 이르기까지
- 출가와 수행
- 포교와 글쓰기

2차시

김일엽과 잡지 《신여자》

학습목차

학습목표

- 김일엽이 창간한 잡지 《신여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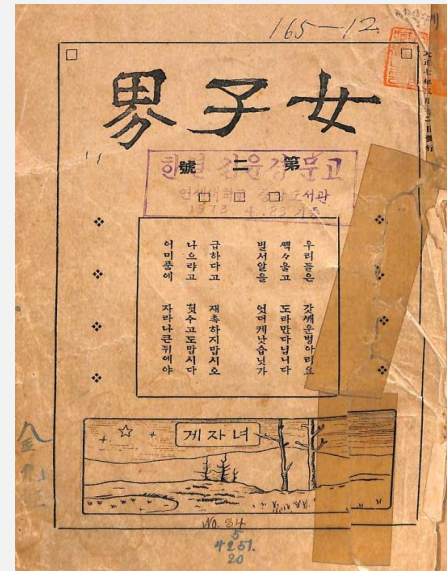
학습내용

- 여성들의 우정과 문학의 공동체
- 《신여자》의 창간과 폐간

여성들의 우정과 문학의 공동체

1917년, 도쿄 유학생들이 발간한 《여자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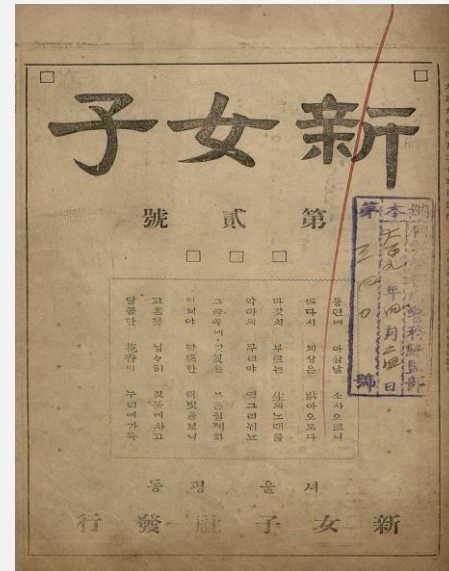
- 김덕성, 나혜석, 허영숙, 황애시덕 참여
- 남성작가들의 영향력



여자계

1920년, 여성주의 잡지 《신여자》의 창간

- 여성 편집자와 여성 발행인, 여성 필자가 주축
-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잡지
- 김명순, 김일엽, 허영숙 등
- 남성 중심적인 문단에 도전장을 던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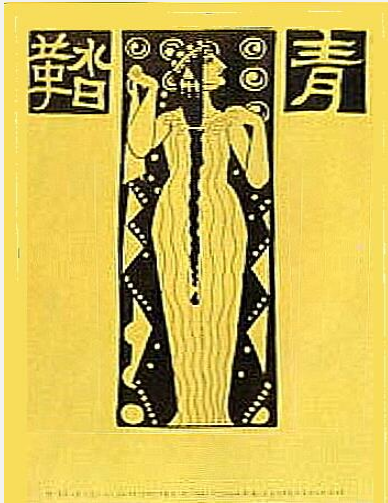


여자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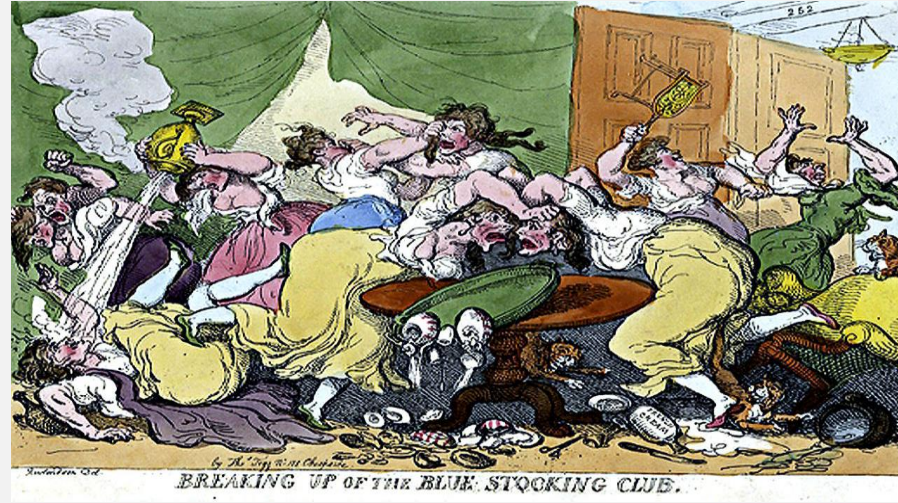
김일엽이 조직한 ‘청탑회’

- 일본의 여성운동가들이 발행한 잡지 《세이토》의 영향
- “우리는 서둘러 잡지를 창간하면서 청탑회라는 모임을 구성하여 일주일에 한 차례씩 만나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일합시고 토론에 열을 올렸다. 말하자면 계몽 운동에 앞장선 셈이었다.”

‘세이토’와 ‘블루스타킹’



《세이토》 1호



토마스 롤랜드슨(Thomas Rowlandson)의 풍자화,
"블루스타킹 클럽 해체"(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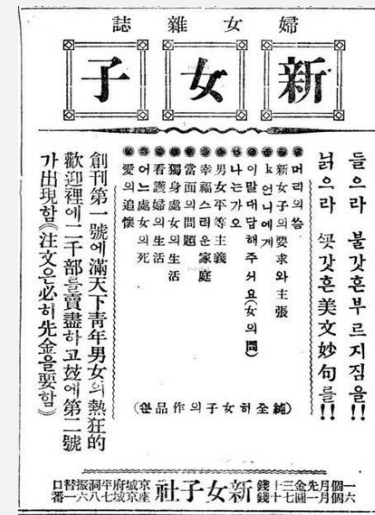
지식인 여성들의 잡지

-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 확보라는 과제

《신여자》의 창간과 폐간

《신여자》

- 1920년 3월 창간
- 편집인 김원주
- “여자의 글은 무엇이나 환영하여 받습니다.”
- 창간호 2천부 매진



신여자 광고

《신여자》 창간사

- ‘여성 해방은 곧 사회 개조의 출발’임을 강조

《신여자》 창간호

- 여성 중심의 편집진
- “기고는 여자에 국한한다.”
- 제1세대 근대 여성작가
 -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잡지의 경영난과 사회의 비난에 맞선 김일엽

- ‘《신여자》는 조선 여자 전체의 것’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

- “우리 신여자사 동인은 아무 지식 없고 아무 경험 없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우리가 감히 신여자를 표방하고 사회에 나섬이 어찌 즐거워서 나서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안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조선 여자 사회는 아직도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

- 그를 따라 장차 우리의 앞에는 여러 가지 비난, 무수한 박해가 끊을 새 없이 닥쳐올 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에 나서서 유치한 우리 여자 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희생해 이바지 아니하면 우리 조선 여자는 영원히 암흑한 구렁에 빠져서 광명한 빛을 못 보고 말 것을 앎이외다.”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 《신여자》 2호, 1920.4

근대 여성 지식인의 ‘글쓰기’

- 자신의 존재를 걸고 쟁취하고자 했음

프랑스 페미니즘 사상가 엘렌 식수(Hélène Cixous)

- “왜 그대가 글을 쓰지 않았는지 나는 안다. 글쓰기가 그대에게는 너무나 높고 동시에 너무나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위대한 자들 다시 말해서 위대한 남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바보짓이다. 게다가 그대는 약간 글을 썼었다. 그러나 숨어서 썼었다. 그건 좋지 않다. 숨어서 썼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는 것을 스스로 벌했기 때문이다.”

엘렌 식수의 통찰과 김일엽의 생애와 문학

- 글쓰기를 통해 여성의 연대를 꿈꾼, 김일엽

여성들의 연대를 호소하다

- “우리는 신시대의 신여자로 모든 전설적, 인습적, 보수적, 반동적인 일체의 구사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로 신여자의 임무요, 사명이요, 또 존재의 이유를 삼는 것입니다. 신여자는 실로 이러한 용기와 포부를 가지고 이 사회에 나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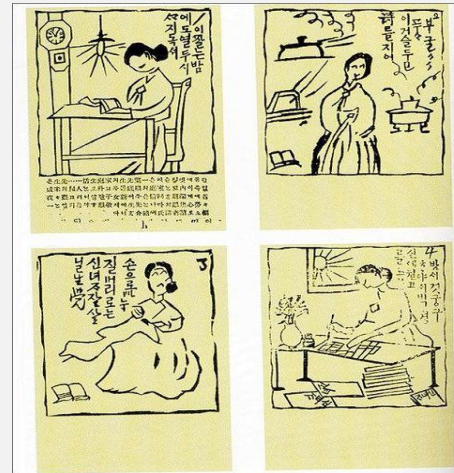
원하건대 현대의 선각자로 자임하는 부인들이시여 조선민족을 위하시거든 여자 사회의 건전한 발달을 바라시거든 모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글쓰기를 통해 여성의 연대를 꿈꾼, 김일엽

- “시부모의 학대, 남자의 전횡, 완고한 구식 과정,
여자 교육과 여자의 인격 무시, 여자의 진로 어느 것이
우리가 부르짖으려는 재료가 아니고 어느 일이 우리가
개척해야 할 도정이 아니겠습니까?”

1920년, 나혜석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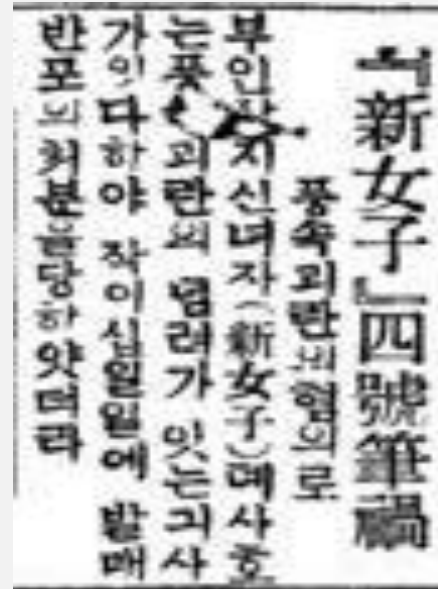
- ‘김일엽 선생의 가정생활’
 - 조선에서 지식인 여성으로 산다는 것
 -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독서와 글쓰기’



나혜석, <김일엽 선생의 가정생활>

1920년 6월

- 《신여자》 4호를 끝으로 폐간
- ‘풍속괴란’을 이유로 발매 및 반포 금지



「신여자 4호 필화, 풍속괴란의 혐의로」
동아일보 (1920.7.22)

학습정리

- 김일엽이 1920년 3월부터 6월까지 발행한 잡지 《신여자》
- 《신여자》의 창간 준비 과정부터 폐간까지의 과정

다음 차시에서는

- 김일엽의 여성해방론 분석

[출처01] 《여자계》 제2호(1918. 3) 연세대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

[출처02] 《신여자》 2호(1920.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출처03]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st_Issue_of_Seito.jpg

[출처04]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owlandson-Bluestockings.jpg>

[출처05] 《동아일보》 1920년 5월 2일자 광고

[출처06] 《신여자》 4호(1920년 6월)

[출처07] 《동아일보》 1920년 7월 22일자 3면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